

텍사스, 공화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 승인 중간선거서 의석 5개 추가 전망, 가주도 조정 추진

텍사스 주의회가 내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 하원은 88대 52로 새 선거구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공화당 성향의 신규 의석 5개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지연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주를 떠나며 벌어진 2주간의 대치 끝에 이뤄졌다. 새 선거구안은 주 상원으로 넘어가 곧바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그렉 에벗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텍사스에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

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근소한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이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표결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집결하자, 주 하원의 더스틴 버로우스 의장은 민주당이 또다시 퇴장해 의사정족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일부 의원들은 경찰관의 '호송' 하에 회의장에 입장해야 했다.

민주당 니콜 콜리어 의원은 경찰의 동행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방식으로 항의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참해 경찰 호송 동의를 거부했다.



▲ 텍사스 오스틴 주의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이 새로 제안된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

텍사스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선거구 재조정 논란을 촉발했다. 플로리다, 뉴욕, 오크라이오, 미주리 등 양당이 우세한 여러 주에서

유사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텍사스의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검토 중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 표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텍사스, 이제 시작이야(It's on, Texas)" 라고 썼다.

이번 선거구 개편은 '게리맨더링' 논란을 불러왔다.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재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은 인종차별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합법이다. 텍사스는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10년마다 선거구를 새로 정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번 조정이 차기 인구조사(2030년) 전에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눴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비자 소지자 전체 추방 사유 확인 5,500만명으로 단속 전면 확대, 비자 취소, 추방 가능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유효한 미국 비자를 보유한 5,5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이는 미국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까지 포함해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국무부는 AP의 서면 질의에 대해 "모든 미국 비자 소지자는 지속적인 심사를 받는다"며, 비자 소지자가 미국 입국 또는 체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징후가 발견되면 비자가 취소되고,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학생·교환 방문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추방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심사 범위가 학생에서 전 비자 소지자로 크게 확장됐음을 시사한다.

국무부는 심사 항목으로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범죄 행위 ▶공공 안전 위협 ▶테러 활동 가담 또는 테러 단체 지원 등을 들었다. 이어 "비자 발급 이후라도 잠재적 결격 사유를 시사하는 범죄·이민 기록이나 새로 드러난 정보를 모두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부는 이미 비자 신청자에 대해 면접의

무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또는 반이스라엘 활동으로 간주된 학생들을 겨냥했던 기존 절차보다 훨씬 폭넓은 조치다.

이번 심사에는 비자 소지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모국의 범죄·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 불법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올해 도입된 새 규정에 따라 비자 인터뷰 시 휴대전화와 앱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해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거·현재·미래 지원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취임 이후 비자 취소 건수를 두 배 이상 늘렸으며, 학생 비자 취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대다수는 비자가 필요하다. 단기 관광이나 출장 목적 방문자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회원국(유럽·아시아 40개국) 시민에게만 최대 3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가 허용된다. 그러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커뮤니티 양로병원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통증관리
- 링거투여
- 당뇨케어, 투석관리
- 호흡 요법
- 인공 호흡기 치료
- 기관 절개관 관리

한국 프로그램

-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선택
- 한국 예배
- 한국 액티비티
- 아트와 게임

의료 서비스

- 피검사 / 엑스레이
- 약국
- 치과, 검안과
- 심리치료 / 정신과 상담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 HMO / PPO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한국어 상담: 임정애 **(562)714-7792**

(909)621-4751 www.communityech.com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



